

생명공학 · 유비쿼터스 가능성 크다!

SERI, CEO 37.5% 생명공학 집중육성 필요 ... 로봇 · 자동차는 글썄

국내 경영자들은 생명공학과 유비쿼터스(Ubiquitous)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집중 육성해야 할 가장 중요한 미래 기술로 꼽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임원급 대상 유료 정보사이트인 SERI CEO 회원들을 대상으로 10월31일부터 11월4일까지 <한국공학한림원이 선정한 10대 주요 공학기술 중 정책적으로 집중 육성해야 할 것은?>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참여자 506명 중 37.5%가 생명공학을 집중 육성해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응답자의 26.7%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네트워크 연결을 가능케 하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지목했고, 신 · 재생 에너지 기술(15%)과 나노기술(11.5%)도 정책적으로 육성하면 세계 최고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큰 분야로 꼽혔다.

반면, 지능 · 감성을 갖춘 휴먼로봇(3.6%), 미래자동차 기술(1.6%), 원자력 기술(1.4%), 보안 · 안전기술(1.4%), 우주항공기술(0.8%), 물위를 낮게 떠서 나는 배 <위그선> 기술(0.7%) 등은 그다지 경영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10월27일 국내 공학 권위자들과 산업계 중역들로 구성된 한국공학한림원은 미래 10년을 이끌 우리나라의 10대 공학기술로 유비쿼터스 시스템, 지능 로봇, 생명공학, 나노기술, 미래 자동차, 위그선, 재생 에너지, 보안기술, 항공우주기술, 원자력기술을 선정 · 발표했다.

<화학저널 2005/11/09>